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26 스리나가르여, 스리나가르여 2



▶한줄 요약
아이슈 무크암에 도착한 이 기자 일행은 성물 아디카야의 검이 있다는 동굴에 들어갔지만 그곳에 검은 없었다.

아이슈 무쿠암 동굴엔 검은 없었다

-안지마라가 어디입니까?

내가 묻자, '나도 고서적에서 읽은 거 같은데….' 하고 송 서화가가 말했다.

-이곳 구도시 칸자르(kbanjar) 지역입니다. 나중에 묘지 주위에 건물이 세워졌지요. 그 건물을 라우자 발(rauza bal)의 준말인 로자발(rozabal)이라고 합니다.

-라우자?

송 서화가가 되뇌었다.

-예언자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이 어딥니까?

내 물음에 오오스마 기자가 머리를 내저었다.

-그 이야기는 차차 하지요. 지금은 우리가 찾아온 성물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일 것 같으니.

나는 순간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일까 아닐까 그것을 떠나 무엇을 확인하려고 여기까지 온 것일까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그것은 송 서화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동굴 앞에서 서성거리고만 있는 것이 그래서이지 싶었다.

-용기를 내서 들어가 보지요 우선.

오오스마 기자가 말했다.

-그, 그럽시다.

송 서화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뒤에서 보니 오오스마 기자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천천히 동굴로 다가들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사람 그림자라고는 없는 걸 보니 예상했던 대로군요.

오오스마 기자가 말했다.

동굴 안은 그렇게 어둡지 않았다. 동방이 길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바닥은 딱딱하고 바짝 말라 있었다. 약간 협소한 동방을 지나자 안이 호로병처럼 넓어지면서 큰 동방이 나타났다. 깬 자갈을 풀로 붙여 놓은 것처럼 비죽비죽 면이 고르지 않았다. 석순은 아니었다. 표면은 약간 잿빛을 띠고 있었다. 동방 중앙에 동산처럼 솟아오른 제단이 있었다. 직사각형의 사람 하나가 누울 수 있는 제단이었다. 예전에 이곳에 이슬람교의 성인의 유물함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 유물함일지도 몰랐다. 더 가까이 다가들었다. 유물함일지도 모르는 직사각형의 돌바닥이 시커멓게 드러났다. 높이에 비해 바닥이 그리 깊지 않았는데 바닥이 평평했다.

-역시 없군요!

오오스마 기자가 작은 음성으로 소리쳤다.

-전에 내가 왔을 때 분명히 인도 정부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성물은 푸른 보자기로 덮여 여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푸른 보자기 밑의 성물을 보지 못했지만.

-그런데 없다?

오오스마의 말에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군요!

오오스마 기자가 자기의 눈을 못 믿겠다는 듯 바위 표면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정말 이상한 일도 다 있군요. 사람들이 근접하여 성물에 손을 대려고 한다면 큰 재앙이 미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성물이 없어졌다니.

-재앙이 있었다고요?

-전에 내가 왔을 때 주민이 그랬거든요. 저곳에 함부로 들어가다가 재앙을 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옛날부터 말이 있었답니다. 성물의 주인이 나타나면 칼이 스스로 자신의 품을 열 것이라고.

-그럼 정말 누군가 그 성물을 가져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되묻자 오오스마 기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데 제단의 높이가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래요?

오오스마 기자의 말에 되묻는 송 서화가의 눈이 번쩍 빛났다.

-그럼 푸른 보자기가 덮였던 건 바로 이 석관이었다?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면 우리의 키 만큼은 아니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이 위에 석관이 놓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위에 보자기가 덮였다는 말이 아닐까요? 재단 높이가 1m 50cm 정도는 되겠군요.

송 서화가의 말에 오오스마 기자가 기억을 더듬으며 석관을 자세히 살폈다.

-맞습니다. 이 정도였어요. 그럼 제단 바닥 아래 공간이 있다?

오오스마 기자의 말을 들으며 송 서화가가 제단 바닥을 툭툭 두드렸다.

-맞습니다!

소리를 들어 보고 난 송 서화가가 확신에 찬 소리로 말했다.

-속이 비었어요. 소리도 그렇지만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주먹으로 두들겼다.

텅텅…. 분명히 속이 빈 소리였다.

-맞아요.

내가 물러서며 소리쳤다.

송 서화가가 나섰다.

-열어봅시다. 어디 입구가 있겠지요.



-우리들의 추리가 맞는다면…. 석관에 손을 대시겠다 이 말입니까?

위기감을 느꼈는지 오오스마 기자가 새파랗게 질려 소리쳤다.

송 서화가가 나를 쳐다보았다. 이미 결심을 굳힌 표정이었다.

-전에 왔을 때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면서요. 그럼 다른 곳으로 옮긴 것입니다.

나는 침착을 가정하며 말했다. 그래도 오오스마 기자가 머리를 내저으며 뒤로 몇 발짝 물러났다. 송 서화가는 의외로 강단이 있었다. 그가 상의를 벗었다. 나도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웃옷을 벗었다. 합장한 다음 석관으로 다가들었다. 오오스마 기자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다. 석관은 단단했다. 오랜 세월 돌이끼가 끼여서인지 그냥 직사각형의 바윗덩이 같았다. 두 사람은 행여 틈새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하여 석관 주위를 유심히 살펴나갔다. 그러다 나의 눈에 오른쪽 모서리 부근이 금이 벌어져 있는 것이 보았다.

-여깁니다.

-석관의 뚜껑이군요.

송 서화가가 말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제야 오오스마 기자가 주춤주춤 다가왔다.

-이미 누가 손을 댄 것 같은데요.

송 서화가가 살펴보다가 허망한 어조로 중얼거렸다. 갑자기 부풀었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송 서화가의 음성이 그 가슴 위로 천둥처럼 떨어졌다.

-열어본 자국이 분명해요. 여기 보십시오. 틈이 큰데요.

송 서화가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더니 역시 밀봉된 상태가 아니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성물을 이렇게 버려둘 수가 없었다. 더욱이 전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도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마음이 칼을 맞은 듯이 쓰렸다.

내가 미쳤구나. 어느 사이에….

-암튼 열어나 봅시다. 세 사람이 밀면 밀릴 것 같은데. 뚜껑이 틀림없다면 어떤 움직임이라도 감지되겠지요.

송 서화가가 말했다.

두 사람이 밀기 위해 석관에다 손을 댄 자세로 서 있고 오오스마 기자가 내키지 않는다는 얼굴로 다가왔다. 세 사람이 밀었지만, 석관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방법이 없을까?

송 서화가가 지쳐서는 털버덕 주저앉으며 말했다.

나는 동굴 안을 살펴보았다. 틈새를 벌릴 무엇이 없을까 해서였다. 잠시 돌아보자 옷가지들이 협소한 공간에 이리저리 널려 있었다. 구석 바닥에 나무 침대 하나가 구석에 놓여 있었다. 나무로 짠 침상이었다. 아마 동굴을 지키던 자가 쓰던 것 같았다. 나무 도마 옆에 녹이 슨 부엌칼 하나가 보였다. 그 곁에는 주먹만한 망치도 있었다. 그것을 가지고 석관 앞으로 돌아왔다. 칼과 망치를 들고 들어서자 오오스마 기자가 입을 벌렸다.

-아니 어쩌려고요. 이 신성한 곳을 칼과 망치로 어쩌시려고…?

-신성을 칼질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내가 떨리는 음성으로 소리쳤다.

-그렇습니다!

송 서화가가 약해지려는 마음을 다잡듯 소리쳤다. 제정신들이 아니었다. 송 서화가가 신들린 사람처럼 눈을 붉히고 칼과 망치를 내게서 뺏어 들었다. 그리고는 석관을 향해 다가갔다. 이내 금이 난 곳에 칼이 꽂히고 칼등을 치는 망치 소리가 동굴을 휘어 감았다. 칼날이 점점 깊숙이 석관에 박히기 시작하던 순간이었다. 석관 뚜껑이 흔들렸다. 오오스마 기자가 겁먹은 얼굴로 주위를 돌아보았다. 송 서화가는 망치를 든 채 허리를 세웠고 나는 무릎을 꿇고 합장했다.

-이러다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오오스마 기자가 계속 주위를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헛된 낭설에 꼬투리가 잡히면 이대로 물러서야 한다는 생각에 내가 석관 뚜껑을 향해 달려들었다. 헛된 낭설이 신앙이 되면 남는 것은 미망일 터였다. 내가 낑낑거리자 송 서화가와 오오스마 기자가 달려들었다. 셋이 힘을 합하자 석관 뚜껑이 움직이다가 점차 옆으로 비스듬히 내려졌다. 석관 안을 보던 우리는 실망하고 말았다. 비어 있었다. 텅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넨장할.

송 서화가가 풀썩 주저앉으며 내뱉었다.

헛걸음하고 돌아섰을 이석원의 모습이 눈앞을 스쳤다. 다시 어디로…? 세 사람은 말이 없었다. 동굴을 나와 갈 곳 없는 사람들처럼 퍼질러 앉았다.

-이럴 줄 몰랐던 것도 아닌데 참 허망하네.

오오스마 기자가 허공을 향해 후후 숨을 내뱉다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러나저러나 저 움막에 살던 사람들은 어디로 간 거야?

오오스마 기자가 눈이 부신 듯 손차양하고 허물어진 움막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성물이 없어지고 군대도 돌아가니까 거처를 옮겼겠지요.

듣고 있던 송 서화가가 말했다.

-이대로 물러설 순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찾아보면 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오오스마 기자의 말에 오기가 실렸다.

-그러긴 하겠지만 그들을 어떻게 찾아요?

내가 말했다.

-관할 관청에 가보면…. 혹시 거주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우리나라의 동사무소를 떠올리며 무릎을 쳤다.

-그러네요!

-지난번 취재차 왔을 때 일이 있어 찾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오오스마 기자가 일어났다.

-어쩌시려고?

내가 묻자 오오스마 기자가 허리춤을 올리며 말했다.

-관청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쉬고 계십시오.

그는 그렇게 말하고 기다리고 있던 택시를 바라보았다. 택시에 기대어 있던 기사가 그를 마주 바라보았다.

-우리도 같이 가지요. 어차피 돌아가야 할 테니….

말하면서 내가 일어나자 오오스마 기자가 앞서 걸었다.〈계속〉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